

그리피스 컬렉션에 포함된 근대 인천과 한성 사진 연구

A Study on Photographs of Modern Incheon and Hansung in Griffis Collection

이 경 민

Lee, Kyeong-Min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양 상 현*1)

Yang, Sang-Hyeon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 병 국

Moon, Byeong-Kuk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Griffis Collec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of Japan and Korea in modern era, collected by William Elliot Griffis. Originally Mr. Griffis was studying about Japan when he developed an interest on Korea, and started to collect helpful materials he could find to study. Later days of Griffis' life, he donated his research to Rutgers University Library, and those materials were named and preserved as Griffis Collection. This paper is about photographs that illustrate modern Incheon and Hansung, and study them in order to discover how Korea's modern cities and architecture were formed and built. In total, there is four categorized chapters of photographs, and those are cities, public buildings, educational facilities and private buildings. In Griffis Collection, there are 23 photos those are relate to this paper's subject, but only 19 of them that has historic value has been covered in this paper. In results, all 19 photos were proved that they have significant information in terms of historic research of modern Korea and Korea's modern architectural stages.

주제어 : 그리피스 컬렉션, 근대 도시, 인천, 한성, 한국 사진

Keywords: Griffis Collection, Modern Cities, Incheon, Hansung, Photos of Korea

1. 서 론

1-1. 연구 목적

19세기 말 이후 한국 근대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진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변형된 과거의 정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한국의 도시는 지난 백여 년 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와 건축과 도시의 과거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바, 알려지지 않았던 옛 사진의 발견은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미국 뉴저지 럿거스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리피

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 중 근대 인천과 한성의 도시, 건축의 모습을 담은 자료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개항기 한국의 근대 초기 모습을 시각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사진자료를 수집한 윌리엄 그리피스 (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는 1882년, 「은자의 나라 한국 (Corea: the Hermit Nation)」을 발표하여 우리나라를 서구에 소개한 미국의 대표적 동양학자이자 저술가로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아 연구했다. 그리피스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은 자료를 그의 모

* Corresponding Author : sonamu@sch.ac.kr

이 연구는 2015년도 순천향대학교의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8 논문

교인 럿거스 대학교의 도서관에 기증하였으며, 이는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으로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다.²⁾ 여기에는 그가 생전에 모은 잡지, 책자, 인쇄물, 사진, 편지, 스크랩북, 서신과 쪽지들이 있는데 일본에 관한 자료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략 1/4 정도가 한국과 중국에 관한 자료들이다.

그가 수집한 자료 중 일부는 사진들로서, 이 중 일부는 이미 알려진 사진과 동일하나 300여장이 넘는 사진들은 그동안 국내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들로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관련 사진자료에 대한 연구³⁾가 진행되어 그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드러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그리피스 컬렉션의 사진들은 풍경, 풍속, 유적 및 인물 등 다양한 생활상에 걸쳐 있지만, 본 연구는 이중 인천과 한성의 도시와 근대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그리피스 컬렉션 중 근대 인천과 한성의 도시 모습 및 근대 건축물들을 찍은 미공개 사진들을 골라 분류하고, 해당 건축물에 관한 도면 및 문서 자료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시각적 정보들을 해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근대 한국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근사하게 유추하고자 하였다.

2. 그리피스 컬렉션의 근대 도시·건축자료 현황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들 중 근대 인천 및 한성의 도시, 건축에 관련된 미공개 사진은 총 23장이다. 이들은 인천 제물포 개항장, 경성이사청 등의 공공시설, 한성전기회사 등의 민간시설, 그 외 교육시설의 모습들로서, 그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흐릿한 채색 사진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사진과 거의 동일한 사진 등 4장을 제외한 19장의 사진을 소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사진의 이름에 부가되어 있는 괄호 속의 표기는 럿

2) 그리피스 컬렉션은 현재 뉴저지 주립대학인 럿거스 대학의 도서관(Rutgers University Library)에 기증되어 있으며, 이는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으로 명명되어 보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2008년 럿거스 도서관의 도움으로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관련 사진자료를 열람하면서 시작되었다. 당 도서관 측의 양해를 얻어, 대상으로 삼은 사진자료들의 전량을 실사 촬영하였고, 국내에 돌아와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양상현·박소연·유영미, 「그리피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 사진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71집, 2014년 11월
박소연, 「그리피스 컬렉션에 포함된 한국 근대 도시·건축 사진자료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2015년 2월

거스대학 그리피스 컬렉션의 소장 위치를 지칭하는 기호다.

Tab.1 Categorized Photographs of Griffis Collection

Category	Subject	Number of Photographs
1. Cities	Incheon	4
	Myeongdong Cathedral	3
2. Public Buildings	Russian Legation	1
	Seoul City Hall	3
	The Seoul Court House	2
	Imperial Resting House	1
	Cabinet Building	1
3. Educational Facilities	A Seoul Public School	1
	The Foreign Language School	1
	The Agricultural School	1
4. Private Buildings	The Seoul Electrical Company	2
	The First Bank of Japan	1
	The Seoul Hospital	1
	The Y.M.C.A	1
Total		23

3. 사진자료 분석

3장에서는 위의 <Tab.1>에서 정리된 네 가지의 분류에 따라 대상 사진들을 분석할 것이다. 촬영 대상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된 사진들을 각 절로 묶어 고찰하는 것이 근대 초기 한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유추하는데 있어 보다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3-1. 근대 인천과 한성의 도시 사진

근대 도시의 풍광을 다룬 사진들은 인천 제물포를 찍은 것들과 한성 시내에 위치한 명동성당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총 7장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내용이 흐릿하거나 단순한 풍광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두 장을 제외한 다섯 장의 사진을 고찰하였다.

<Fig.1>은 인천항 전경으로 사진의 화각으로 보아 월미도 정상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1875년의 한일수호조약과 뒤이어 체결된 제물포 조약으로 1883년 1월에 인

천항이 개항되었다. 이 사진 하단에는 ‘인천항전경(仁川港全景)’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다. 사진의 해상도 또한 선명하여 확대하면 당시의 근대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



Fig.1 View of Incheon Harbor (c09_kp1-3)

확인되지 않았다. 근대 문물이 밀려들어오던 개항장 인천의 현장을 근대식 건축물의 모습과 함께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다.

아래의 <Fig.2>는 인천항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왼쪽의 섬들은 월미도와 소월미도이며, 오른쪽으로는 개항의 중심이 되었던 제물포의 모습이 보인다. 개항과 함께 빠르게 근대식 건축물이 건립되어 개항장을 채워나갔던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다.

다른 사진 자료들과 달리 파노라마식 촬영 방식이 당시 항구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 인천의 모습을 부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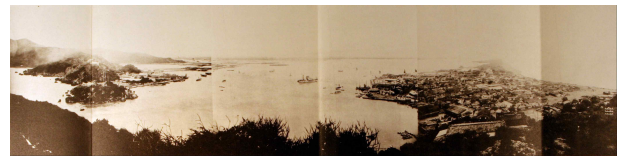


Fig.2 Panoramic View of Incheon Harbor (c10_kp2-5)

Tab.2 Modern buildings of Incheon Harbor⁴⁾

The Incheon Harbor	Modern buildings	
	①	②
		① Dae-Bul Hotel
		② Japanese Legation
		③ Se-Chang Company

<Tab.2>의 ①은 1888년에 설립된 대불호텔의 모습이 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로,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맞이했던 대불호텔이 항구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부분을 확대하면 일본 깃발이 꽂혀 있는 모습까지 식별되는데, 이곳이 1833년 개항과 함께 2층의 목조 건축물로 건립된 일본 영사관이다. 오늘의 인천 중구청 자리에 해당한다. 사진 오른쪽, ③의 위치에 보이는 건물은 1884년에 설립된 세창양행 사옥이다. 세창양행은 독일의 무역회사인 마이어상사의 제물포 지점이다. 이 건물들의 존재로 보아 사진은 1888년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는



Fig.3 The Chemulpo Harbor (c10_kp2-3)

<Fig.3>은 제물포항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찍은 사진으로, 조선의 재래식 나룻배와 서구의 근대식 기선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개항기의 과도적 상황에 놓여있던 인천항의 단면이 인상 깊게 드러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Fig.4>는 우리나라 천주교를 대표하는 명동성당의 모습을 원경으로 담아낸 사진으로 근대 한성의 도시 가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명동성당 본당은 당시 국내 유일의 순수한 고딕양식의 연와조 건물로, 1892년(고종 29)에 착공하여 1898년에 준공하였다.

4) 박소연, 「그리피스 컬렉션에 포함된 한국 근대 도시·건축 사진자료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2015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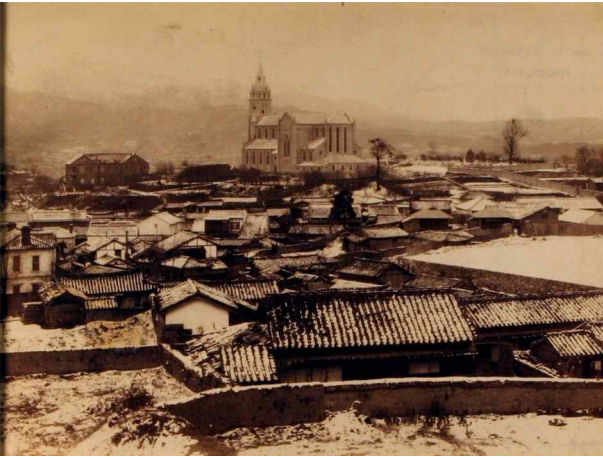


Fig.4 The Myeongdong Cathedral (c10_kp2-4)

사진의 화각으로 보아 남산 줄기가 충무로 쪽으로 뻗어 내려온 ‘진고개’ 언덕에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그리피스는 사진의 뒷면에 ‘1898년 서울의 모습’이라고 메모해 두었는데,⁵⁾ 그렇다면 이 사진은 준공된 바로 그 해 겨울의 명동성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당의 앞쪽으로 현재 충무로 2가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습이 보이는데, 조선에 외래 문물이 밀려오며 따라 재래의 도시 한옥들과 근대적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당시 한성 시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명동성당 본당의 왼편으로는 주교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건물은 아래 사진 <Fig.5>에도 나타난다.



Fig.5 Picture of surroundings of Myeongdong Cathedral (c09_kp1-2)

<Fig.5>의 위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명동성당의 주교관으로 1888년 7월 착공하여 1890년 준공된 건물이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1979년 새 주교관이 건립되면서 개수를 거쳐 현재 사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형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5) Seoul the korean capital in 1898 showing methodist college and french cathedral, Griffis Collection

3-2. 공공기관

구 러시아 공사관, 경성이사청, 평리원 등 총 8장의 공공 시설물 사진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기존에 알려진 사진과 거의 동일한 것들을 제외한 6장의 사진을 살펴보겠다.



Fig.6 The Russian Legation (c10_kp2-4)

<Fig.6>은 구 러시아 공사관의 남서측 모습으로 언덕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러시아공사관은 한·러 수호조약이 체결된 1885년에 착공해 1890년(고종 27)에 완공한 르네상스식 건물로 러시아인 사바찐(Afanasy Seredin-Sabatin 1860-1921)이 설계했다. 사진 앞쪽으로 위병들로 보이는 러시아 인들이 입구에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ab.3 Comparison of picture of legation and site plan

The Legation	Site plan ⁶⁾

<Tab.3>은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들과 배치도 자료에 나타난 건물들을 비교한 것이다. ①의 건물은 공사관 본관으로 정동 언덕의 꼭대기에서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주요부분이 파괴되었으며 현재 담 부분만 복원되어 현존한다. 본관의 남동쪽에 있는 ②번 건물은, 일자형 한옥으로 공사관비서가 사용했었으며, ③의 위치에 있는 담장 또한 배치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김정신, 「구한말 서울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9권, 6호, 2010, 9쪽



Fig.7 The Seoul City Hall (c09_kp1-2)

<Fig.7>은 현재의 충무로 1가 자리에 세워졌던 경성이사청의 모습이다. 1896년 일본 공사관으로 건립된 후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경성이사청(1906-1910)이 되었으며 부제가 실시되면서 그대로 경성부청(1910-1926)으로 쓰였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경성이사청은 벽돌로 건립된 2층의 르네상스식 건물로, 중앙 현관을 아치로 구성하고 있다.

Tab.4 Detail drawings of City Hall

Front gate plan ⁷⁾	Site plan ⁸⁾

<Tab.4>는 경성이사청의 담장 공사도와 배치도(1915년)로서, 배치도에 표기된 관리실 역할의 ‘문위(門衛)’를 사진 오른쪽 담장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경성부청의 사진들과는 달리 입구 기둥 위의 조명장치나, 오른쪽 담장 앞의 게시판이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외관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Fig.8>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던 시기,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평리원(공소원, 경성재판소의 전신)의 사진이다. 원본의 사진을 테두리에서 ‘평리원(平理院)’이라는 한자가 확인된다.



Fig.8 The Court House(Supreme Court & Seoul Appeal Court) (box12_대형박스)

평리원은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시대 의금부 터였던 공평동 부지에 이전, 신축할 것을 결정하여 1908년 8월 1일에 공소원으로 개편, 개칭된다. 아직 부지 정리가 덜 끝나 있는 사진 속의 상황으로 보아 1907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개칭 직전의 시기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중앙의 돔을 축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형의 입면을 가지고 있어 사법기관으로서 권위적인 외관을 추구하였음을 드러낸다.

Tab.5 Elevation of Court House

Front elevation ⁹⁾	Details ¹⁰⁾

<Tab.5>는 1906-07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리원의 정면도 및 정면상세도이다. 사진은 위 도면에 의해 건축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석재의 장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면과 차이 없이 시공된 모습을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9>는 앞의 사진과 동일한 건물로서, 사진 속의 정황이나 ‘경성재판소(京城裁判所)’라고 기록된 사진 하단부의 표기 및 문주에 걸려 있는 ‘고등법원(高等法院)’ 표기로 보아 통감부령으로 명칭이 변경된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앞 사진으로부터 수 년 정도 지난 뒤의 상황으로, 건물 외벽 곳곳에 난방을 위한 연통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경성이사청이문신설공사도 / 6, 국가기록원, 1909 추정

8) 경성부청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 / 16, 국가기록원, 1915

9) 평리원급한성재판소정면도, 국가기록원, 1906-07 추정

10) 평리원급한성재판소중앙정면지도, 국가기록원, 1906-07 추정



Fig.9 The Seoul Court House (c02_kp2-3)

<Tab.6>은 재판소의 담장과 입구 및 법원의 공고를 내어 붙이는 게시장의 신설 도면으로, <Fig.9>의 사진 속에서 담장의 모습과 그 밖의 게시장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Tab.6 Detail drawings of the Seoul Cour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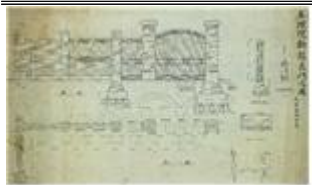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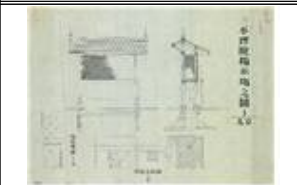
Front gate ¹¹⁾	Bulletin board ¹²⁾
	





Fig.10 Imperial Resting House (c09_kp1-3)

<Fig.10>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상의 건물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사진이나, 건물의 명칭은 물론 건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료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사진과 그리피스의 메모에 기대어 당시 건립되었던 이 건물의 위치, 용도 및 성격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 사진의 뒷면에는 ‘임페리얼 하이웨이 상에 있는, 황제가 머무는 건물¹³⁾’이라고 쓴 그리피스의 기록이 남아있다. ‘임페리얼 하이웨이’는 명성황후의 묘를 청량리에서 금곡(현재의 홍

유릉)으로 옮기기 위해 고종이 한성전기회사에 위탁하여 1900년 9월에 착공, 1901년 초에 건설한 폭 15.24m, 거리 약 20.9km에 이르는 신도로¹⁴⁾이다. 이로써 유추하면 이 건물은 황제가 홍(유)릉을 행차하는 경우 머물 수 있도록 당 도로 상의 금곡 인근의 위치에 건립된 ‘행궁(行宮)’에 해당하는 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당 건물의 건축가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Tab.7 Similarity between the Geong Gwan Hun and the Imperial Resting House

Geong Gwan Hun ¹⁵⁾	Imperial Resting House
	

<Tab.7>은 덕수궁의 정관헌과 당 사진 속 홍릉 행궁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사진들을 비교한 것이다. 두 건물 모두 서구적인 양식과 전통적인 기법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며 건물의 규모나 장식의 품격으로 보아 황제와 관련된 건축물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정관헌이 정면 7칸, 측면 5칸의 규모임에 비하여 행궁으로 추정하는 건물은 정면 9칸, 측면 3칸으로 크기가 다르지만 지붕의 스타일과 입면에서 나타나는 얇은 열주 및 난간의 처리 등에서 매우 흡사한 양식을 보여주어, 덕수궁의 정관헌과 구 러시아 공사관을 설계한 사바쩨의 작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관헌의 설립이 1900년이며, 사바쩨가 1904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이 건물의 건립과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 기능에 있어서도 정관헌이 황제의 연회나 유식에 사용된 것으로 행궁의 역할과 유사하며, 당시 고종의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것을 고려하면 사바쩨가 이 건물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발굴되는 사료를 통해 이 건물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 및 연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1) 평리원신설표문지도, 국가기록원, 1906-07 추정

12) 평리원게시장지도, 국가기록원, 1906-07 추정

13) Imperial Resting House on Imperial Highway, Griffis Collection

14)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토목편」 2010, p.239

15) 출처: <http://youngwan12.tistory.com/846>



Fig.11 The Cabinet Building (box12_대형박스)

<Fig.11>은 탁지부 청사로 알려진 정부 내각 건물로, 1907년 4월 기공하여 12월에 완공되었다. 해방 이후까지 법원으로 사용하다가 1970년에 철거되었다.

평리원이나 이사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좌우 대칭의 평면과 권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입면을 가지고 있으며, 아치로 강조된 입구와 그 위에 얹어진 돔이 눈에 띈다. 건물 앞의 허술한 조경이나 정리되지 않은 진입로의 상황으로 보아 건물의 완공 직후인 1907년 말에서 1908년 초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3-3. 교육기관

이 절에서는 한성사범부속보통학교, 한성외국어학교 그리고 수원농림학교로 추정되는 사진 등 총 3장의 자료를 고찰하겠다.



Fig.12 A Seoul Public School (box12_대형박스)

<Fig.12>는 한성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의 모습으로, 1895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 교원양성학교에 딸려있던 초등 교육 시설이었다. 규칙적으로 창호가 배열되어 있는 모듈의 배치로 보아 층당 3개의 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물 왼쪽 날개 부분의 1층에 두 쪽짜리 입구가 눈에 띈다. 외벽은 목조 판벽으로 마감되었고 각 교실마다 연통구멍이 있으며, 1층 창호 상단에 눈썹지붕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우천 시를 고려한 배려로 보인다. 보통학교의 우측 뒤로 보이는 다른 2층 건물이 한성사범학

교 교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13 The Foreign Language School (box12_대형박스)

<Fig.13>은 한성외국어학교의 사진이다. 1906년 학제 개혁에 따라 기존의 외국어 학교들을 전부 통합하여 한성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운현궁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으며, 1911년 폐지되어 그 자리에 경성여고보가 들어서게 된다.

단층의 근대식 건물에 박공지붕을 씌운 현관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외벽은 목재판벽으로 마감되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인물들의 다양한 복색으로 보아 외국어학교라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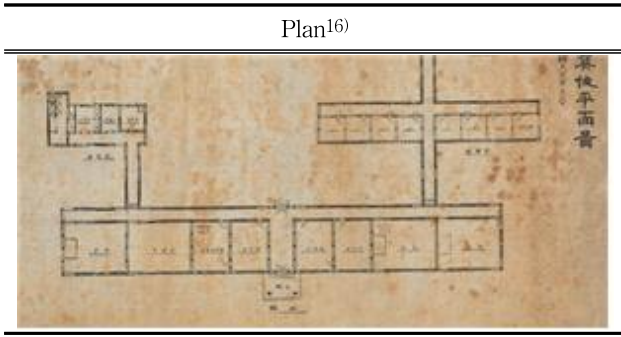


Fig.14 The Agricultural School attached to the farm (box12_대형박스)

<Fig.14>의 외곽 상단에는 ‘농장에 딸린 농업학교(The Agricultural School attached to the farm)’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적 정황으로 보아 1907년 이전 건립된 수원농림학교(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에 일치한다.

<Tab.8>의 수원농림학교 본관평면도와 비교해 보면 건물의 규모, 평면 형태 및 돌출 현관의 배치 등이 모두 동일하여 이 건물이 그 본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층의 목조 건물로, 수직의 창호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교육시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형태를 알 수 없었던 수원 농림학교의 초기 모습을 시각적으로 알려주어 의미 있는 사진자료로 평가된다.

Tab.8 Plan of Suwon Agricultural School



3-4. 민간 건축물

여기에서는 한성전기회사, 인천제일은행, 서울병원, 서울 Y.M.C.A 등 민간 건축물들의 사진 5장을 다루겠다.



Fig.15 The Seoul Electric Company (c09_kp1-3)

<Fig.15>는 1898년 전차·전등·전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한성전기회사의 사옥으로 현재의 종로2가 8-4에 위치해 있었으며 미국인 H.콜브란과 H.R.보스윅이 운영하였다. 1902년 1월 5일에 건물이 불타 그 해 7월에 다시 개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⁷⁾ 사진 속의 건물에서는 돌출된 아치형의 현관과 그 상부로 중앙의 시계탑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시계가 희귀하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주목받는 건물로서 회사의 상업적 지향을 표방한 외관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의 시계탑에 시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02년 화재 이후 재건된 직후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Fig.16>은 이 건물 내 보스트윅의 사무실 사진으로 창문의 모양과 위치로 보아 건물 2층의 모서리에 놓인 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에 보이는 책상이나 의자, 램프 및 도기 등으로 당시의 집무환경을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 방 중앙에 걸려있는 액자 모서리에 걸쳐있는 성조기에서 보스트윅의 성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16) 농림학교본관기타평면도, 국가기록원, 1906-17 추정

17) 이중화, 「경성기략(京城記略)」, 1918



Fig.16 Bstowick, H.R.'s Office (c09_kp1-3)

<Fig.17>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에 남아 있는 인천일본제일은행 건물로서 탁지부 소속 일본인 건축가 니이노미(新家孝正)가 설계하였다. 1897년(광무 1) 8월에 착공하여,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899년 7월에 준공되었다.



Fig.17 The First Bank of Japan in Incheon (c09_kp1-2)

이 건물은 현관부의 아치나 건물 중앙부에 둠에서 르네상스 풍이 느껴지며, 견고한 석재의 사용으로 은행 건물다운 중후함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인 존(Jones, G. H.) 박사는 1900년 당시의 제물포를 소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견고한 석조(화강석) 사옥을 가졌으며, 또 막대한 거래(은행업무)를 하고 있는 제일은행(일본 동경에 본점이 있음)이 제물포에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⁸⁾

력거, 마차들에서 당시 종로의 생기를 읽을 수 있다.

4. 건축물 현황 분석

4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19장의 사진들의 추정 촬영일자, 당시와 현재의 건물 사용용도의 변화 및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과거 도시의 모습을 현재에 투영, 비교해 볼 것이다. 현재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일부 이상 남아 있는 건물들로는 총 5개가 있으며 사진들은 대부분 1890년 후반에서 1910년 초반까지 다양한 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한국 전쟁 때 파괴되었으며 또한 건물을 사용하던 기관이 해체됨에 따라 철거된 경우도 있다.

먼저, 인천항 전경을 촬영한 <Fig.1>은 1888년도에 지어진 대불호텔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888년 이후에 촬영된 사진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명동 성당일대와 주교관을 촬영한 <Fig.4>, <Fig.5> 또한 1898년에 준공된 주교관을 사진에서 확인함으로써 촬영 일자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명동성당과 주교관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로서 주교관은 현재 천주교 서울 대교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을 담고 있는 <Fig.6>은 사진 뒤편에 적혀있는 메모¹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5년 6월 3일 촬영하였으며, 공사관 본관과 부속 건물들은 한국전쟁 당시에 파괴되고 지금은 탑 부분만 남아있다. 현재는 그 주위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맞은편에 뉴질랜드 공사관이 위치해 있다. 경성이사청을 촬영한 <Fig.7>은 설립 이후 경성부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의 시기인 1906-1910년 사이에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에 건물을 허물고 미쓰코시 백화점을 건설하였고, 현재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판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Fig.8>과 <Fig.9>는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의 상태나 주변의 모습으로 미루어보아 각각 1907-1908년, 1909-1912년에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1957년에 신신백화점을 건설하며 사라졌고, 지금은 그곳에 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임페리얼 하이웨이 상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궁의 모습을 담은 <Fig.10>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시작한 1900년 이후에 촬영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에 확인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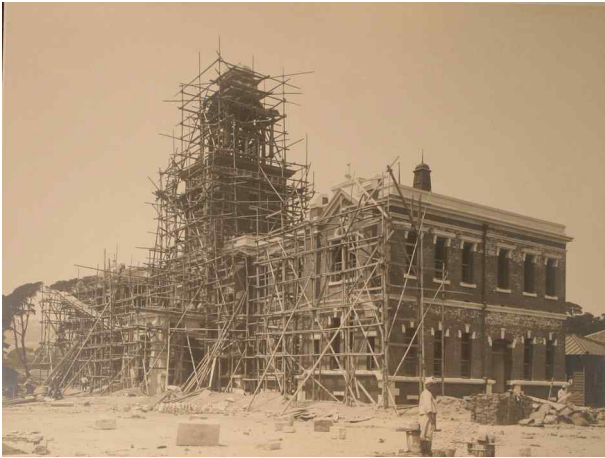


Fig.18 The Seoul Hospital (box12_대형박스)

<Fig.18>은 당시의 대한의원으로,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병원연구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1907년 3월에 착공, 이듬해 5월에 준공되었으며, 축조 당시에는 규모가 더 컸으나 현재는 본관 건물만이 남아 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아 사진은 1908년 초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구조물과 건물 앞에 널린 각종 자재들에서 당시 공사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한 인부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역시 인상적이다.



Fig.19 The Y.M.C.A. (box12_대형박스)

<Fig.19>는 기독교청년회(Y.M.C.A)의 건립 당시 모습이다. 당 건물은 1908년에 준공되었으므로 사진의 촬영시기는 준공 이전의 시기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다.

사진 속에서 공사 현장의 주변으로 가림막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분주히 걸어 다니는 행인들과 인

19) Today June 3rd, 1905. There is a great celebration going on south mountain by the Japanese in honor of Togo's _____. There will be no more Russian legation as far as I can see for Korea. The six temple bells that used to ring their Greek service are silent and doubt less will ____ so. Banzai Japan!

18) Johnes, G.H., 「Korea Review 코리아 리뷰」, 1901.01

16 논문

건물의 잔재나 문서자료의 부족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한성전기회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Fig.15>는 1902년 화재 이후에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위치가 현재 종로 2가 8-4번지임과 회사가 1909년까지 존재하였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1907년에서 1909년까지 경성재판소와 약 200m의 거리를 두

고 나란히 종로에 위치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인천일본제일은행을 촬영한 <Fig.17>은 1899년 이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은 현재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한의원은 현재 대한의원본관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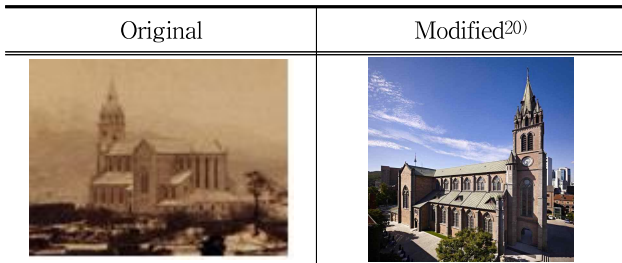
밑의 <Tab.9>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Tab.9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Title of Photos	Date of Shoot	Original Usage of Building	Currant Usage of Building	The Basis of Presumption	etc
View of Incheon Harbor	1888년 이후	- (해당사항 없음)	-	1888년도에 지어진 대불호텔 확인	
Panoramic View of Incheon Harbor	? (추정 불가)	-	-		
The Chemulpo Harbor	?	-	-		
The Myeongdong Cathedral	1898년	성당			
Picture of surroundings of Myeongdong Cathedral		주교관	친주교 서울 대교구청		
The Russian Legation	1890-1904	영사관	탑 부분 제외 파괴됨		한국전쟁 때 파괴됨
The Seoul City Hall	1906-1910	시청	× (존재 안함)	1930년에 허물고 미쓰코시 백화점 건설	
The Court House	1907-1908	법원	×	1957년에 신신백화점 건설	
The Seoul Court House	1909-1912	법원			
Imperial Resting House	1900년 이후	행궁으로 추정	×	건물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전적으로 그리피스의 메모와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관한 문서에서 내용을 유추함	
The Cabinet Building	1907-1908	정부청사	×		
A Seoul Public School	1895 이후	학교	×		1960년에 폐쇄
The Foreign Language School	1906 이후	학교	×	1911년 서울여고보 건설	
The Agricultural School attached to the farm	1907년 1월	학교	×		1946년 서울대학교에 통합됨
The Seoul Electric Company	1902	사무실	×		1909년에 폐쇄
Bstowick, H.R's Office					
The First Bank of Japan in Incheon	1899 이후	은행	인천개항 박물관		
The Seoul Hospital	1908년 초	병원	대한의원 본관		
The Y.M.C.A.	1908년 이전	문화시설	×		한국전쟁 때 파괴됨

역사적 보전 가치가 뛰어나거나 지금까지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들은 외장이나 구조물의 보수를 통해 여전히 이용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박물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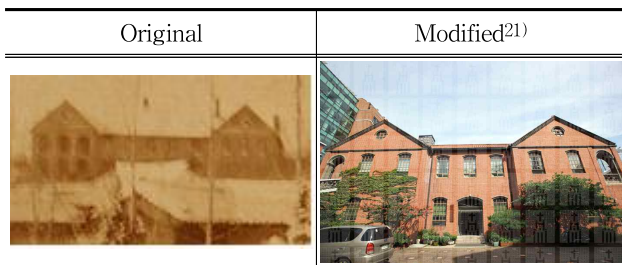
Tab.10 Comparison of Myeongdong Cathedral's State -1



명동성당은 완공 이후 구조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4년과 1984년의 대규모 보수공사와 2002년의 부식된 벽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 및 2010년의 그 일대를 개편하는 ‘명동성당 종합계획’ 등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주교관 또한 각종 구조보수공사와 2010년 ‘명동성당 종합계획’의 일부로 대수선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Tab.11 Comparison of Myeongdong Cathedral's State -2



Tab.12 Comparison of Russian Legation's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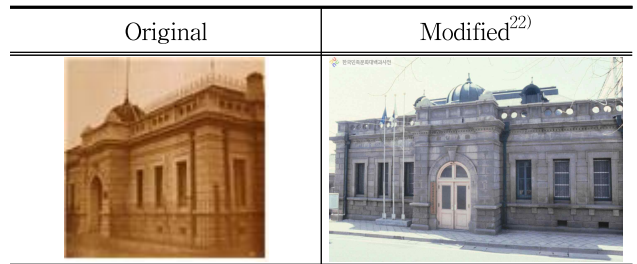
20) 명동성당 홈페이지(mdsd.or.kr)

21)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cc.catholic.or.kr)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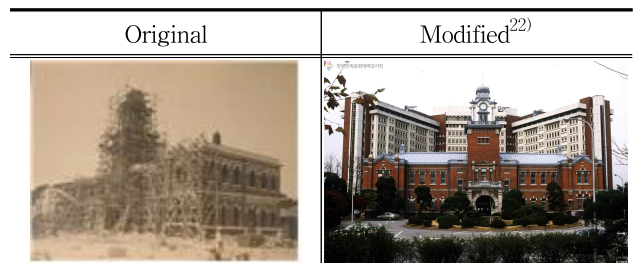
구 러시아공사관은 한국전쟁 당시에 건물의 대부분이 멸실되었고, 탑 부분만 남아있으며 현재 그 주위에 정동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Tab.13 Comparison of The First Bank of Japan's State



인천일본제일은행은 2000년 지붕마감, 창호, 외부벽체, 금고 내부 벽, 2층 사무실 바닥과 천장 등의 대대적 보수를 거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Tab.14 Comparison of The Seoul Hospital's State



대한의원 본관은 1979년의 탑시계 보수와 1981년과 2001년의 두 번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Tab.10>에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이 당시와 현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사진 속 건물들의 성격이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중요한 문화공간이었기에 인천에 위치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로나 명동 등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도시에서도 중요한 노드²³⁾(Node, 혹은 결절점)에 자리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백화점이나 은행 등의 건물이 세워지거나 성당이나 박물관 등 중요한 도시의 역사적 요소 혹은 랜드마크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3)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Image of the City)의 5가지 요소 - 도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 에 나오는 결절점을 뜻한다.

Tab.15 Analysis of Remaining Buildings

Title of Photos	Original Usage of Building	Currant Usage of Building	Modifications in Buildings	etc
The Myeongdong Cathedral	성당	성당	- 1898년 완공 이후 구조보수 전무 - 1974년과 1984년에 대규모 보수공사 - 2002년 9월부터 부식된 벽돌 30만~40만장 교체 - 2010년에 성당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명동성당 종합계획'을 발표, 2011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에 준공	
Picture of surroundings of Myeongdong Cathedral	주교관	천주교 서울 대교구청	- 2010년 명동성당 종합계획의 일부로 대수선	
The Russian Legation	영사관	-	- 한국전쟁 때 파괴되고 탑 부분만 남음	
The First Bank of Japan in Incheon	은행	인천개항 박물관	- 2000년 지붕마감, 창호, 외부벽체, 금고 내부 벽, 2층 사무실 바닥과 천장 등 대대적 보수 ²⁴⁾	
The Seoul Hospital	병원	대한의원 본관	- 1979-1980년 사이 탐시계 보수 - 1981년 보수공사 - 2001년 구대한의원본관보수공사	

5. 결론

이상 본고에서 살펴본 그리피스 컬렉션에 포함된 19장의 근대 인천 및 한성의 도시·건축 사진들로 통하여 개항 당시 인천 제물포항의 상황과, 각종 공공건물, 근대 교육기관 및 민간시설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사진들은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진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1890년대에서 1910년대 초에 촬영된 자료들로서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의 시작 시기에 이르는 근대 초기의 도시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사료적 가치가 주목된다.

각 유형별로 보아 인천항의 사진들은 개항 초기 제물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사진들에서는 1900년대 초 일제 강점 초기에 식민지배시설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홍릉 행궁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지금까지 문헌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 존재와 용도 및 사바전의 설계임을 추론한 것에 뒤이어 추후 상세한 연구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기관의 사진들은 공통적으로 왕대공 형식의 박공 지붕과 목재 판벽으로 마감된 입면을 보여주었으며,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설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농림학교의 1907년 이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도 지적할만하다. 마지막 유형인 민간건축물들에서는 대한의원과 Y.M.C.A 건물의 건립 현장을 사진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그리피스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근대 인천, 한성의 도시 건축 사진자료들을 상세히 고찰할 수 있었다. 사라져버렸거나 변형된 근대 도시 건축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한말에서 근대 초기에 걸친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진 자료들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Park, So Yeon, 「A Study on Korean Photos of Cities and Architectures in Griffis Collection」, Dept.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oon Chun Hyang University, 2015
2. Yang, Sang Hyun, 「The Significance of Korean Photos in the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at Rutgers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ol.71, 2014
3. Joo, Sang Hun, 「Characteristics of Building the Modern Facilities administrated by the Japanese General in Korea」,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4.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National Archives of Korea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viewMain.do>)
5. 「조선총독부 기록물」, National Archives of Korea (<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24) 이 안, 근대건축물의기로 - 복원과 보수 - 구 일본제일은행인 천지점, 월간건축문화사 No.236, 2001.01

감사의 글 (고 양상현 교수님을 추모하며)

흐르는 물처럼, 가벼운 바람처럼 부드럽게 유연하게 삶의 맛을 즐기시던 양상현 교수님의 스카프에서는 항상 상쾌한 자유의 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꿈만 꾸던 저를 거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보듬어주시던 교수님께 부족함 없는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던 제 마음이 이젠 교수님의 부재로 인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한 때는 미래였던 현재도 교수님의 조언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속한 운명이 저희 모두에게서 교수님의 미소와 따스한 마음을 빼앗아갔지만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던 이 논문을 완성함으로써 저는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교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존경을 담아 이경민 올림.

Received (1.22.2015)

Revised (1st: 10.28.2015, 2nd: 11.17.2015)

Accepted (12.1.2015)